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느 날의 短想

사자암에는 전설에서나 나올법한 우렁각시가 살고 있다. 우렁각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도움의 일을 해주는 어떤 존재를 이르는 말'로 되어있다.

그런데 사자암의 우렁각시는 밤사이 마당도 쓸어주고 끼니때마다 밥도 지어주는 부지런한 우렁각시다. 마당을 쓸어주는 우렁각시 이름은 세찬 바람이고 밥을 지어 주는 우렁각시는 쿠쿠 압력밥솥이다.

사자암에는 대중이 많이 모여 사는데 도반이자 스승이요, 착한 이웃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진돗개이자 고양이들이다.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서 햇살을 품에 담으며 꾸벅꾸벅 졸 때에도 곁에서 함께 조는 도반이며 사료를 잔뜩 그릇에 담아주어도 먹이 조절을 보여주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사자암의 숲이며 바위며 고목나무에 이르기까지 숲 사이로 날아다니는 산새며 들꽃에 이르기까지 가끔씩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 남는가를 내게 되물으며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려주고 있다.

참앎·봄 이뤄야 진정한 선지식
오늘의 삶은 또 하나의 기적

인도에 머물 때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을 한 후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는 울림이 생명과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어도 여럿과 함께 있음이요, 여럿과 함께 하면서도 혼자만의 여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비우고 버리고 덜게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홀가분하게 비어 있음의 충만을 즐기고 있다.

꾸미고 덧칠하며 드러냄 없이, 속이고 감추며 모아둠 없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집착 없이 사는 삶이 평화로웠다. 고맙고 감사하며 미안해 얼굴 붉힐 줄 알지만 아닌 것은 끝가지 아닌 것으로 마무리 한다.

따르는 자가 줄어들고 사찰 경제가 땅바닥을 기고 있어도 방편을 앞세운 타협이나 구걸행위 비슷한 목탁 울림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대접받는 불교, 예우 받는 스님에서 서너 걸음 내려와 상대가 누구이던 맞절 문화로 평등성을 키워오지만 기관장들에겐 이유있는 매서운 회초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섬이던 오지이던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마다하지 않으며, 한 차례이든 열 차례이든 강의비를 받지 않고 개운하게 법보시를 실천한다.

가끔씩 찾아와 법거량하는 구도자들이 부처님처럼 반갑고 끝장 토론장에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 대화 나눌 때가 금싸라기처럼 소중하다. 가끔씩 지리산에 흩어져 사는 도반 스님들이 찾아오거나 찾아가 담소 나누는 일이 즐겁고 나들이 떠나는 설렘에 행복하다.

작년에도 지리산의 산신령인 도반 스님 한 분이 떠나갔지만, 떠날 준비로 비에 젖은 흙 담장처럼 스멀스멀 무너져 내리는 도반 스님들의 건강이 짠한 아픔으로 다가 온다. 머지않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그저 그렇게 사라지면 좋으련만 향봉의 건강에도 이곳저곳에서 이상음이 들려오고 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생명의 마감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극히 당연한 징조들이 가슴을 싸하게 짓누르며 두어 방울의 눈물로 남는다.

글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빈 손, 추억의 줄기뿐이지만 오늘의 삶이 그대로 또 하나의 기적이자 전설처럼 느껴진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에서 노숙자처럼 생활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 차례 부활하는 일도 겪게 되지만 인도에서의 아름다운 체험, 깨달음의 기쁨은 향봉의 삶에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빛의 충만을 의미한다.

참 앎(知)과 참 봄(見)을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지식이며 누가 무엇을 물어도 막힘과 걸림이 없는,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것이다.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 참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사람은 모으고 챙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무엇을 물어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이름 석자 알리는 일에 집착하고 신도와 재산을 모으려하며 명예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는 조작된 선지식이요,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속물근성에서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자, 창밖으로 싸락눈이 내리고 있다. 머잖아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따스한 봄이 찾아오겠지만 앞으로 몇 차례나 싸락눈을 지켜볼지, 봄 마중의 꽃 나들이를 떠나게 될지 해질녘의 향봉에게 되묻고 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길고 짧은 것만 다를 뿐인데.

천하만물이 불법 설하니, 곧 무정설법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동산 양개(洞山良价:807~869) 선사는 중국 선종 5종 가운데 조동종(曹洞宗)을 창시한 종조(宗祖)다. 육조의 제자 청원 행사(靑原行思)의 5대손이다.

선사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형과 살다 남방으로 떠나 글방에 들어가 유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불교 교리에 심취해 유학을 버리고 출가할 것을 결심했다. 선사는 이 때 어머니에게 올리는 사친서(辭親書)라는 편지를 남기고 출가한 스님으로 유명하며 그 글이 널리 알려져 있다. 선사는 오설산(五洩山) 영묵(靈默) 선사의 문하로 가서 스님이 되었다. 21세에 숭산(嵩山)에서 비구계를 받고 제방을 편력하다가 남전 보원(南泉普願)선사를 참방하여 종지를 깊이 깨달은 뒤 위산 영우(潙山靈祐) 선사를 찾아갔다.

그때 위산 선사가 동산 선사에게 남양 혜충(南陽慧忠) 스님이 제기한 '무정설법(無情說法)'이라는 공안을 간택해 주어 참구하게 하였다. '무정설법'이란 정식이 없는 산천초목과 같은 무정이 법을 설한다는 말로 의식과 분별이 없는 존재들도 각기의 본분에 머무르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지혜를 갖춘 사람은 그것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조당집(祖堂集)〉 '혜충장' 에는 이런 대화가 있다. 남방에서 온 선객이 혜충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의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담장과 기와조각 같은 무정물이 모두 옛 부처의 마음이다."

"경전의 말과 크게 어긋납니다. 〈열반경〉에는 '담장이나 기와조각 같은 무정물을 여의었기 때문에 불성이라 했습니다."

"그대가 만약 무정에게 불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식(識)일 뿐이다' 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화엄경〉에 '삼계에 존재하는 법은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무정이 삼계 안에 있는가? 삼계 밖에 있는가? 그것이 마음인가? 마음이 아닌가? 무정이 마음이 아니라면 경전에서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무정이 마음이라면 무정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대가 경전의 뜻을 어긴 것이지 내가 어긴 것이 아니다."

"무정에게 마음이 있다면 법을 설할 줄 압니까?"

"그들은 치열하게 설하니 늘 설하고 변함없이 설하고 쉬지 않고 설한다."

처음 '무정설법'을 참구하던 동산 선사는 별 소득이 없자 위산 선사의 지시에 따라 운암담성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무정의 설법을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무정이 듣는다."

"스님께서도 듣습니까?"

"내가 만약 듣는다면 그대는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할 것이다."

"저는 어째서 듣지 못합니까?"

운암 스님이 불자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다.

"들었는가?"

"못 들었습니다."

"내가 설법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거늘 어찌 무정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무정의 설법은 어느 경전에 설해져 있습니까?"

"〈아미타경〉에 '흐르는 물과 새들과 수목이 모두 염불하고 법을 외운다 하지 않았던가?"

이 말에 동산 선사가 깨달은 것이 있어 게송을 지어 말했다.

"대단히 기이하고 대단히 기이하도다. 무정의 설법은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도다. 만약 귀로 들으려 하면 끝내 알아차리기 어렵고 눈으로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알 수 있으리라."(也大奇 也大奇 無情說法不思議 若將耳聽終難會 眼處聞時方可知)

이렇게 읊고는 운암 스님을 떠나 돌아오다 강을 건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다시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선사는 뒤에 운암 스님의 법을 잇고 오위군신설(五位君臣說)을 제창하여 종풍을 크게 떨쳤다. 입적을 할 때 제자에게 삭발을 해 달라 하고 가사를 입히게 한 다음 종을 치게 하여 대중에 작별을 고했다. 선사는 7일을 연기하여 죽을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을 위로하는 우치재(愚癡齋)를 지내고 8일째 되던 날 목욕을 하고 단정히 앉아 입적하였다고 한다.

세상 낱낱의 존재는 마음작용 산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⑫ 심성의 작용

생들이 머물고 있는 삼계는 각자 근기에 따른 업보의 세계이고, 분별망념의 세계이므로 허깨비 같은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은 허깨비를 위한 법문이기 때문에 팔만사천 방편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진리의 법을 말한 바 있다고 하면 이는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말한다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이 설법이기 때문이다"고 하셨습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닌 '진공'이고, '이름이 설법이다'는 없는 것도 아닌 묘유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금강(金剛)은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금속물질 중에 가장 강한 면과 희소성에 그 가치가 있겠지만, 다이아몬드 본체에는 아무런 색깔을 띄고 있지 않아서, 파란색의 대상을 만나면 파랗게 되고 노란색의 대상을 만나면 노랗게 되어, 자신의 고정된 색을 띄고 있는 다른 보석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자체 만으로는 마음일 수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대상과 관계 지워질 때에만 마음일 수 있으며, 대상 또한 그 자체 만으로는 대상일 수 없으며 대상과 관계 지워질 때에만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에서도 '대상을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금강을 마니주(摩尼珠)라고 하며, 선문(禪門)에서는 심성(心性)의 비유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금강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요 중에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의 노래가 있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여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겨울엔 하얄 거여요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우리들의 눈과 그 눈에 가득히 비친 파란빛과 하얀빛, 산과 들, 나무와 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르지 않아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있는 것이 아닌 진공이 마음입니다. 파란빛과 하얀빛, 산과 들, 나무와 집이 밝고 뚜렷하여 없는 것도 아닌 묘한 작용이 마음입니다.

반야(般若)는, 공(空) 또는 지혜를 이르며 지식과 구별됩니다. 지혜는 우주와 인생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고, 지식은 반복된 습관으로 있음과 없음과 같은 모든 분별을 구하는 망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세하게 아는 어리석음과 극히 미세하게 아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신 것입니다.

마음이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며, 우주는 본체이고 우주의 일체 존재는 작용이며, 낱낱의 존재가 우주이고 우주가 낱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체가 작용이고 작용이 본체로, 체와 용이 둘이 아니고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을 구하는 지식은 체와 용을 둘로 나누고, 낱낱의 존재와 우주가 서로 다르다고 하며, 우주와 티끌을 둘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진실과 작용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다만 부작용을 일으킨 우리들이 그 부작용의 과보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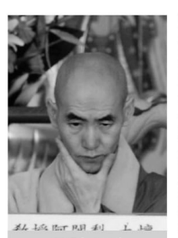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 및 신심명 · 증도가 개강 안내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

4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 **종범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4월 10, 17일 월요일 저녁 7시 : **도일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4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 **도암스님** (전, 송광사 강주 / 현, 통도사 율원 교수사)

열린불교아카데미 제 4기 〈신심명 · 증도가 〉 강설

5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개강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수업)
상임지도법사 : **원순스님** (전.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 현.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장소 : **묘광선원**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문의 : **051-244-0263 / 010-3564-3725**


종범스님

도일스님

도암스님

원순스님

※주차는 묘광선원 건너편 (구, 부산진구청 뒤) 성원주차빌딩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차비는 개인부담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